보성 감자생산 감소… 농민도 서민도 '한숨'

이상고온·봄가뭄에 수확량 30%↓

도매가 작년보다 1만5000원 높아

지속되는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인해 보성 감자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 회천면 주민들은 요즘 조림용인 '추백'과 삶아서 간식용으로 먹는 '수미' 등 햇감자 수확작업으로 부산하다.

올해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왕특품 20㎏들이 한 상자에 4만5000~5만원으로 지난해(3만5000원 선)보다 1만~1만5000원 높다.

하지만 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해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10a(300평)당 생산량이 120상자 정도였지만 올해는 80상자에 불과하고, 왕특품 생산비율도 30% 정도 감소해 농가소득이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 농민들은 봄부터 지속된 이상기온과 가뭄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천 새마을협의회 오형권 회장은 "감자는 생육 비대기인 5월 중·하순께 적정온도가 20~25도이나 올해는 25도 이상의 고온현상을 보였다"며 "게다가 강우량이 부족해 감자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고말했다.

한편 감자 주산지인 보성지역은 회천면과 득량면 지역에서 850ha정도 면적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고흥 녹동지역 마늘밭에 개설된 산지 경매장. 농민과 중매인을 직접 연결, 중간유통마진을 없앰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고흥 마늘산지 경매장, 농민소득증대 기여

출하비용·일손 절감… 중매인 직접 연결 공개입찰

마늘 주산지인 고흥지역에 '마늘산지 경매장'이 개설돼 출하 비용과 일손절감 등 생산 농민들의 직·간접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흥 녹동농협은 마늘 출하기간인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마늘 경매장'을 산지에 개설, 생산농민과 중매인을 직접 연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경매하고 있다.

산지 경매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5일 현재 50만6000단(1단=6~7kg) 이 출하돼 32억1000여만원의 마늘이 판매됐다. 마늘값은 지난해 최고 단가 2만200원·평균단가 1만5500원 이었으나, 올해는 최고가가 1만6400원·평균단가가 6360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올해 마늘값이 저조한 것은 잦은 강수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20%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 마늘산지에서 동시에 출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마늘값은 내려가고, 양파값은 올라갈 것'이라는 방송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양수원 녹동 농협장은 "산지 경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서울·대구·부산 등 대도시에 마늘을 출하할 때 발생하는 상·하차비와 수송비, 청소비 등 제반 유통비용을 실비만 받는 등 생산 농민들의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늘 재배농민들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곡성 꼬마잠자리 환경 한마당' 9~10일 섬진강 기차마을

'2012 곡성 꼬마잠자리 환경 한마당' 축제가 오는 9~10일 섬진강 기차마을 엔젤로즈 시크릿가든 1004 장미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17회 환경의 날'을 접목시킨 기념식을 시작으로 학생 전국 동요제, 관광객 즉석 노래자랑, 저녁노을 환경 콘서트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환경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골든벨 퀴즈대회 등도 열린다.

또 섬진강 침실 생태습지길 뽕뽕다리 강변에서 은어·참게 등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비롯해 곤충체험, 세계 희귀조류 관찰,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축제장에서는 멜론·표고버섯 등 다양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명품 한우, 유기농 채소 등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정원박람회장, 국내외 주요 인사 발길

교과부장관 등 교육관계자 110여명 방문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국내외 주요 인사와 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1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2012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했다.

조충훈 시장은 이 장관에게 정원박람회 개최의의와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체험 및 수학여행 코스로 선정해 줄 것과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 16만점이 전시될 '꿈의 다리'에 전국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제 청소년연합(IYF)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외국어 통역 등 자원봉사 지원과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일본 오사카의 친환경 시민단체인 '물의 모임(水都會)' 후지이 카오루 대표는 박람회장내 '순천만 호수'에 갈대 배를 직접 제작해 띄우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원 박람회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보존하고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 및 단체들의 벤치마킹도 쇄도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정원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 국내외 기관·단체 등의 방문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며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광양 마동지구 우림필유 9월 입주

광양시 마동택지개발 지구내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가 오는 9월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당초 6월 입주 예정이던 우림필유 아파트는 우림건설이 은행관리와 법정관리 절차 등을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시행사의 발빠른 대처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에 탄력이 붙었다.

우림필유 아파트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은 우림건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견실한 시공사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월 중순 대우산업개발과 전격 아파트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시공사와 빠르게 현장 인수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공사를 재개했다.

그동안 우림건설의 경영난으로 인해 아파트 신축 공정이 미진해 입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지지부진하던 아파트 신축 공사가 대우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 입주 여부와 관련된 각종 논란들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착공한 우림필유 아파트는 9개동 803세대 84㎡(723세대)·118㎡(80세대)로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식품산업에 930억 집중 투자 육성

전통과자·장류·우리술 등 2016년까지 15개소 단계적 진행

전북도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과 '복분자 전략식품 육성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도는 지속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큰 자원을 개발하고, 집중 컨설팅 등을 통한 체계적 공모를 추진해 오는 2016년까지 15개소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9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농·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9월께 추진되는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다수의 도내 사업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6개 시·군 추천을 받은 9개 사업의 사전 예비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화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5개 시·군 7개 예비추천 사업단을 선정했다.

현재 예비 추천된 사업은 ▲우리 농산물 전통과자 클러스터(전주시) ▲서해안 황토 고구마 밸리 조성사업(정읍시) ▲'와일드 푸드'(wild food) 명품화사업(완주군) ▲전통장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순창군) ▲전북 우리술 명품화 사업(고창군) 등 7개 사업이다.

군산시와 정읍시가 참여하는 '새만금 고품질 농·축산식품 공동 마케팅' 사업의 경우 ▲2015년 육가공 2000t·신선채소 1000t ·매출 63억원 ▲우유 및 육가공 공장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구축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예비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단은 사전 평가기준의 엄격한 컨설팅을 통해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가참여형 이익환원 체계마련 ▲식품가공과의 연계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 이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이달에 예비추천 사업단 심층 컨설팅과 7월 전략 워크숍을 거쳐 8월에 신청 사업단을 최종 평가해 9월에 최종적으로 3개소를 선정, 농식품부에 추천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관련 농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농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흙먼지 날리던 학교에 녹색의 휴식이

순창군, 순창고에 '학교숲' 조성…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

순창군이 도시내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숲'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순창 제일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순창고등학교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학교 숲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창고 교정에 반송 등 교목류와 연산홍, 백문동 등 총 3200여 그루를 식재하고, 화강석 경계석과 앉음벽을 쌓아 학생들이 화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학교 숲 조성사업은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학교에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백정기 의사 순국 78주기 추모식

숭고한 애국 독립정신 기려

항일 독립운동가 백정기(1896~1934) 의사 순국 78주기 추모식이 지난 5일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의열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생기 정읍시장, 김철수 시의회 의장, 장택수 교육장을 비롯해 유족회, 호국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회장 박기수) 주관, 익산 보훈지청·정읍시·정읍 교육지원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추모식에 이어 2부 백 정기의사 기념관 및 영상 관람, 3부 글짓기 사생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백 정기 의사는 1896년 1월 전북 부안에서 출생해 소년시절을 정읍에서 보냈다. 1911년 일본경찰 폭행사건으로 감시대상이 되자 3·1운동에 직접 가담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자금모금 등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백의사는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대련·심양·장춘 등을 독립운동 무대로 활약하며, 재중국 무정부주의 연맹을 창립하고 '정의공보'를 발행했다. 항일 구국연맹 산하 비밀결사대 '흑도 공포단'의 책임자로 천진 일본영사관 폭파시도, 군수물자 수송선 폭파, 일본 주요 요인들 연회장 육삼정 폭파결의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33년 장기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1934년 6월 순국했다.

정부는 해방과 함께 윤봉길·이봉창·백정기 등 삼의사(三義士) 유골을 봉환해 국민장으로 치르고, 건국공로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전북소방본부, 화재진압 연구대회서 우수상

전북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심평강)는 소방방재청 주최로 최근 김제시 삼성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12년 전국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본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북 소방안전본부는 지하 공간에서 효율적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릴레이(Relay) 전술'을 전국 최초로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한국전쟁 자료 전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산지역과 관련된 한국전쟁 자료를 수집·전시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면 자료의 형식이나 종류에 제한 없이 소장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이나 대여 절차를 거쳐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6·25 관련 특별 전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민족의 아픈 상처가 새로운 시대의 밑거름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한다"한다고 말했다. 문의(063-450-4541)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 보석박물관, 개관시간 30분 앞당겨 운영

익산 보석박물관은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6월부터 10월까지 개관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 운영한다. 또 매표는 5시까지, 폐관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6시를 유지해 관광객들의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개관시간 조정으로 보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익산의 아름다운 보석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시, 화장 유언남기기 서약행사

정읍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묘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읍시 기관단체대표 화장(火葬) 유언 남기기 서약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내 지도층 인사들부터 화장을 유언으로 남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화장문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생기시장은 "화장장을 건립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